

문헌정보학 분야 정보격차 연구동향 분석*

Analysis of 'Digital Divide' Research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강인서 (In-Seo Kang)**

김혜진 (Hea-Jin Kim)***

초 록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에서 다루지는 정보격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문헌정보학관련 4개 학술지에서 발행한 195편의 논문을 수집하고, 해당 문헌을 대상으로 연구대상(11개 하위 범주), 연구목적(4개 하위 범주), 연구방법(4개 하위 범주)로 코딩하였다. 이것을 저자 키워드와 함께 패스파인더 알고리즘을 적용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취약계층(연구대상) 중 장애인, 다문화가정, 고령자에 대한 연구가 79.5%로 특정 계층에 집중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보격차, 장애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문화,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취약 실태와 해소방안을 목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정보취약 해소효과, 정보취약의 영향요인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고령자, 독서치료, 정보화교육, 정보활용, 독서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정보격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함께 사례연구 또는 설문조사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analyze research trends of 'digital divide'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o this end, we coded research subjects with 11 subcategories, and research objectives with 4 subcategories, and research methods with 4 subcategories, and constructed keyword networks to which a pathfinder algorithm was appli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79.5% of studies are on the disabled, multicultural families, and the elderly among information vulnerable groups, and it was found to be concentrated in specific groups. In addition, digital divide related studi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resolving information vulnerabilities such as people with disabilities. We also found that these studies focused on verifying the effectiveness by designing and applying treatments such as informatization education, information utilization, and reading programs. Lastly, the most frequently used research method in the digital divide was found to use case studies or questionnaires simultaneously with literature research.

키워드: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분석, 정보격차, 정보취약, 정보취약계층,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trends analysis, digital divide, information
weakness, information poor, pathfinder network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5A8033713).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박사과정, 대전자운초등학교 교사(kiso0405@hanmail.net) (제1저자)

*** 공주대학교 문헌정보교육과 조교수(erin.hj.kim@kongju.ac.kr) (교신저자)

■ 논문접수일자: 2020년 5월 26일 ■ 최초심사일자: 2020년 6월 12일 ■ 게재확정일자: 2020년 6월 22일

■ 정보관리학회지, 37(2), 333-352, 2020. <http://dx.doi.org/10.3743/KOSIM.2020.37.2.333>

※ Copyright © 2020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정보화 사회에서 개인과 사회, 국가의 경쟁력은 지식과 정보를 얼마나 보유하고 접근할 수 있으며 활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산업 사회에서 재화의 '부익부, 빈익빈'이 심각한 문제였던 것처럼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이 사회 양극화를 초래하고, 분리된 계층을 고착화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정보접근이 상대적으로 제한되거나, 개선되기 어려운 정보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격차는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 해소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에서도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부문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여겨지고 있다. 2007년 4월 제정된 「도서관법」에서 도서관의 목적을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정보격차 해소 등 국가 및 사회문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라는 도서관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도서관법」 제43조 1항에 '도서관은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자료, 프로그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이은철, 심효정, 2008). 이는 정보 접근과 이용에 관한 도서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이다.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는 것과 같이 그 수단으로서 도서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보격차는 '한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이 지리·경제·교통·통신·신체·연령적 조건으

로 인하여 정보에 접근 및 활용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에서의 차이'(윤희윤, 2012)를 의미한다. 「도서관법」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조항의 근거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국가적 차원의 지원을 법으로 정하고 있으며(윤정옥, 광동철, 심경, 2012), 「도서관법」 제43조에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책무가 명시되어 있고,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장애인, 수급권자, 노인, 농어촌의 주민 등을 '지식정보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이들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 개발 및 제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어왔다. 그러나 실제로 도서관과 문헌정보학계에서 사회적 변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원인이나 요구, 취약계층별 정보취약 요인 해소를 위해 얼마나 폭넓게 연구하고 고민해 왔는지는 의문이 든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정보격차에 대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즉, 정보격차의 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정량적으로 분석·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해서 먼저 문헌연구를 통해 정보격차 연구대상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인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등 4개 학술지를 대상으로 정보격차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였으며, 저자 키워드와 초록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격차의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을 분석기준에 근거하여 수집된 문헌들을 수작업 코딩하였다. 분석단계에서 수작업 코딩과 저자 키워드를 혼합하여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여 정보격차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에 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았다. 이어지

는 본 연구의 구성은 2장에서 이론적 배경으로 정보격차와 정보취약계층의 개념과 범위를 제시하였고, 3장에서는 관련 선행연구를 기술하였다. 4장에서는 데이터수집 및 분석기준, 키워드 네트워크(패스파인더 네트워크) 구축방법을 설명하였고, 5장에서는 분석결과와 6장에서 결론과 제언을 제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정보격차의 개념

정보격차는 '정보접근'과 '정보활용'이 가능한자인 정보 부자(Information Rich)와 그렇지 못한 자 즉, 정보 빈자(Information Poor) 사이에 사회적·경제적 격차가 생겨나는 현상을 가리키는 말로, 1995년 뉴욕타임스의 개리 앤드루 폴 기자가 정보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의미하는 용어로 처음 사용하였다. 같은 해 7월 미국 상무부가 정책보고서에서 정보격차를 공식적으로 언급했고 이후 논의가 확대되었다. 우리나라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조 제9항에서는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좀 더 포괄적인 정의로는 '정보접근 및 이용이 여러 사회집단 간 동등한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는 현상을 지칭하는 포괄적인 용어'이다(한국전산원, 2000). 우리나라는 2001년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보격차의 개념이 정립되었고,

저소득층, 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등 정보접근이 어려운 이들에게 정보통신망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정보이용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2009년 폐지되었으나 2009년 제정된 법률 제9705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근간이 되었다.

학술적 연구에서 밝힌 견해로는 이명진과 박기태(2009)는 정보격차는 정보 매체에 대한 접근 여부뿐만 아니라 접근을 통해 얻은 정보를 이용하여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이들의 정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지형학적 요인에 의해 초래되는 격차에 주목하여 정보격차를 논의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서이종(2000)은 정보격차를 정보접근 및 이용에 있어서 정보 부자와 정보 빈자 간의 사회적 격차로 보고 정보접근뿐만 아니라 정보활용에서의 격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동일 맥락에서, 조용완(2007)은 정보격차란 '다양한 형태의 정보 및 정보매체 접근환경과 정보활용능력, 정보 마인드 등을 갖춘 개인 또는 집단과 그렇지 못한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차이'라고 정의하였다.

2.2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더불어 정보격차에 대한 문제 인식은 정보접근 및 정보활용 역량이 낮은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성신, 강보라, 이세나(2019)의 문헌정보학분야와 일반사회과학분야의 정보격차 연구동향 분석에 의하면, 일반사회과학 분야의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는 관점에서 정

보격차를 연구한 논문들이 다수이며, 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정보소외계층의 정보행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적절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19년 디지털정보격차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장애인, 고령자, 농어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91.7%가 컴퓨터, 스마트폰 등의 정보통신기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터넷 접근도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비해 정보통신기기 활용능력을 나타내는 디지털역량은 60.2%, 정보의 양적·질적 활용 정도를 나타내는 인터넷 활용도는 68.8%만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즉 근래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가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정보활용 역량 신장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 3월 25일 일부 개정된 법률 제9528호 「도서관법」과 2011년 1월 17일 공포된 대통령령 제22625호 「도서관법시행령」에서는 '지식정보격차', '지식정보취약계층'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도서관법」 제8장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동법 제43조, 제44조, 제45조에서는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의 역할'이 명시되는 등 「도서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는 정보와 정보격차의 개념 정의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정보격차 해소의 대상은 명시되어 있다. 「도서관법」 제43조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정보취약의 원인과 도서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도서관법시행령」 제21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

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65세 이상의 노인, 농어촌 주민을, 제3차 도서관 종합발전계획에서는 국군장병, 재소자,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정보격차해소교육의 대상에서는 한부모가정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까지 포함하고 있다. 즉, 신체조건, 경제능력, 나이, 문화 및 언어, 거주지역 등으로 인해 정보접근에 제약이 생기는 사회 계층과 문화적 소외계층을 정보격차의 해소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다. 정보격차와 관련된 각종 법률에서 정보격차 해소 대상을 종합해보면 <표 1>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격차'와 앞서 기술한 정보격차 해소 대상을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다. 즉, ① 정보격차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③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④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촌 주민, ⑤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의 국군장병, ⑥ 재소자, ⑦ 북한이탈주민, ⑧ 아동복지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 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의 결혼이민자, ⑩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령」 제34조 정보격차해소 교육의 대상에서는 한부모가정 및 보호를 필요로 하는 사람, ⑪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

〈표 1〉 정보취약계층의 범위

정보취약계층 하부집단	정보취약 속성	출 처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	제3차 도서관발전 종합계획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5조	국가정보화 기본법시행령 제34조
① 장애인	신체/정신	○	○	○	○
② 기초생활수급자	경제	○	○	○	
③ 고령자(65세 이상 노인)	신체	○	○	○	○
④ 농어촌 주민	지역	○	○		○
⑤ 국군장병	접근		○		
⑥ 재소자	접근		○		
⑦ 북한이탈주민	문화/언어		○		○
⑧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문화		○	○	
⑨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사회/경제				○
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의 보호를 받는 사람	사회/경제				○
⑪ 그 밖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	기타				○

하는 사람 등 신체, 정신, 연령, 지역, 경제, 문화 및 언어 등에 의해 정보접근 및 정보이용에 제약 받는 11개의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하는 정보격차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3. 선행연구

문헌정보학분야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논의는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조용완(2007)은 장애인, 고령자, 이주민, 농어촌 거주자, 도시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및 해소를 위해 국내 공공도서관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58개의 국내 공공도서관을 표본으로 홈페이지 게시물을 분석하여,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 해소 활동은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빈약하고, 국외 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관련 지침에 비해 미진

함을 밝혀냈고, 사서들의 인식 개선, 자료 제작, 정보기기의 효율적 구입 방안 등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윤정옥, 박동철, 심경(2012)은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속성에 관한 고찰을 통해 정보취약계층 관련 개념들의 정의와 이들과 관련된 국내외 관련 문헌을 조사하였고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 정책 수립과 방향 설정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취약계층의 속성과 범주에 대해 심층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성신 외(2019)는 문헌정보학과 일반사회과학에서의 정보격차 연구동향을 저자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비교·분석하였다. 문헌정보학분야에서는 공공도서관 중심의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정보서비스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노인에 대한 연구가 일반사회과학분야에 비해 많지 않음을 발견하였고, 일반사회과학분야의 경우 정보사회의 특성에 주목하여 최근의 스마트환경에

서의 정보격차 현상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즉 일반사회과학에서는 사회적 변화로 인해 정보격차 문제가 심화될 것인지 혹은 감소될 것인지에 관심이 있다면, 문헌정보학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이용자 서비스 중심의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영희와 장로사(2019)는 DBPIA에서 '도서관'과 '정보소외계층, 정보취약계층, 지식정보 취약계층, 정보불평등 계층',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농어촌, 다문화, 난민, 북한이탈주민'을 키워드로 1996년부터 2018년까지 발행된 논문 97편을 대상으로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연구동향을 발행년도, 학술지, 연구자, 연구주제 등으로 분석하고 관련 연구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문헌정보학 이외의 분야에서 논의된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는 주로 법 제정의 필요성과 지원되어야 할 행정정책들에 관한 논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서형준과 명승환(2016)은 정책적 측면에서 정보격차 문제를 다루고 있는 한국행정학보,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지역정보화학회지, 정보화학정책,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등 7개 학회지에서 2000년부터 2014년까지 발행된 정보격차 논문 56편을 선정하여, 연구방법, 연구목적, 자료수집 방법, 연구결과 활용, 분석 단위, 연구주제, 정보격차 발생 요인, 정보격차 접근방식, 정보격차 유형 등으로 분류하여 메타분석을 진행하였고, 기존 동향연구 및 정보격차 연구를 재구성하여 후속 정보격차 연구의 방향 및 문제점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김유미(2007)는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격

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에서 장애인, 노인,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을 법으로 보장하며, 정보통신 장비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정보이용 능력 신장을 위한 평생교육제도의 도입과 이를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조선구, 노영, 정혜용(2005)은 취약계층 정보활용 기회 확대방안 연구에서 장애인, 노인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통해 기존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효과성을 검증하고 이를 바탕으로 차별화된 정책적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정보접근, 정보이용, 정보활용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정책과 지원전략을 제시하였다. 최충현과 이구연(2013)은 대한민국 정보격차 현황과 대책에 대한 연구에서 인터넷 및 스마트기기 보급 및 활용능력을 영향요인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정보취약의 현상들을 조사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국제적 공조를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앞서 기술한 선행연구와 달리 정보격차 연구동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정보격차 연구의 대상(정보취약계층),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의 분석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들이 포함된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가시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4. 연구방법

4.1 문헌 데이터 수집

행정학 및 정책학 분야의 학술논문을 대상으로 평가연구의 내용 및 연구방법 등에 대한 일

반적인 경향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안한 오철호(2009)의 정보화평가연구의 경향에서 학회보의 기존 연구 경향 분석 연구들의 문제점으로 표본을 통해 모집단을 설명하려는 표본조사에서 표본추출과정에 내재하는 샘플링현상(sampling bias)은 결과를 왜곡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이라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집단 선정을 위해 문헌정보학을 대표할 수 있는 적어도 10년 이상 활동을 해온 학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고 있는 학회보를 대상으로 학술진흥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의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를 문헌 수집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등 4개 학회지가 선정되었고, 이들 학회지에서 정규 발간된 논문들을 수집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정보취약 관련 문헌의 수집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연구의 문헌 데이터는 <표 2>에 기술한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지에서 창간년도부터 2019년까지 정기 발행한 논문(4135편) 중 195편(4.72%)이다. 데이터수집은 '정보격차' 및 '정보취약계층' 관련 용어들이 학술적으로 개념 정의되지 않고 연구자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국가정보화 기본법」, 「도서

관법」, 「도서관법시행령」, 제3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에서 사용된 '정보격차', '정보 빈곤', '정보 불평등', '정보취약', '정보소외', '정보제약', '정보 불균형'이라는 용어와 <표 3>과 같이 정보취약계층의 11개 하부집단을 검색어로 활용하였다. 관련 문헌의 검색은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와 각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하였다.

4.2 분석기준

동향연구는 일정한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주로 연도, 연구주제, 연구목적, 연구대상, 연구영역, 연구자(소속, 전공, 경력), 연구기관, 연구방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정소윤, 유평준, 2014). 최근 노영희와 장로사(2019)의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에서는 연도, 정보취약계층, 학술지, 연구자, 연구주제별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본 연구는 정보격차 연구동향 분석을 연구대상(정보취약계층),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 3개의 하부영역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서 수집한 논문 195편의 저자 키워드와 초록을 참조하여 각 논문마다 연구대상은 11개 하위 범주, 연구목적은

<표 2> 문헌정보학 4개 학회지 발행의 정보취약 논문

학회지	발행기관	창간연도	전체 논문 수	정보취약 논문 수
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	1970	1,153	52 (4.51%)
한국비블리아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	1972	790	46 (5.82%)
정보관리학회지	한국정보관리학회	1984	978	21 (2.15%)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1999	1,214	76 (6.26%)
계			4,135	195 (4.72%)

〈표 3〉 정보격차 관련 문헌 검색어

검색어	관련 검색어
① 장애인	장애, 난독, 특수학교, 통합교육, 점자
②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저소득층, 빈곤, 수급자, 생활보호대상자
③ 고령자(65세 이상 노인)	고령, 노인, 노령, 노년층, 시니어, 노안, 나이들
④ 농어촌 주민	농어촌, 농촌·어촌·산지촌, 시골, 군 단위, 벽지
⑤ 국군장병	병영, 군인, 군대, 국군, 병사
⑥ 재소자	소년원, 교도소, 교정교육, 비행
⑦ 북한이탈주민	탈북, 북한이탈, 새터민
⑧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컴터 청소년, 역기능 가정, 기출청소년, 아동학대
⑨ 다문화가정(결혼이민자)	다문화,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이주민, 이민자
⑩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사람	한부모 가정, 이혼가정
⑪ 그 밖의 필요를 인정하는 사람	난민, 외국인, 유학생
추가 검색어	정보취약, 정보취약계층, 정보불평등, 정보소외, 정보불균형, 정보빈곤, 정보제약

〈표 4〉 정보취약 연구동향 분석기준

분석기준	하위 영역
연구대상	① 장애인, ② 기초생활수급자, ③ 고령자, ④ 농어촌 주민, ⑤ 국군장병, ⑥ 재소자, ⑦ 북한이탈주민, ⑧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⑨ 다문화가정, ⑩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사람, ⑪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인정하는 사람
연구목적	① 정보취약실태, ② 정보취약해소방안, ③ 정보취약영향요인, ④ 정보취약해소효과
연구방법	① 사례연구, ② 문헌연구, ③ 설문조사, ④ 면접조사

4개 하위 범주, 연구방법은 4개 하위 범주로 각각 식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동향 분석기준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정보취약계층은 관련 법률에서 제시된 하위 범주를 11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주제는 전자참여연구의 연구주제에 대한 경험적 분류를 진행한 정소윤과 유평준(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정보취약 실태(국내외 취약 실태 및 인식조사, 연구동향, 정보취약으로 야기되는 영향), 정보취약 해소방안(정보취약 해소에 기여하는 요인, 해소정책 소개 등), 정보취약의 영향요인(정보취약과 관계성을 갖는 요인), 정보

취약해소 효과(정보취약해소 프로그램의 평가, 소외계층의 정보화에 따른 영향)등으로 구분하였다.

문헌정보학의 연구방법에 따른 분류는 거시적으로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정소윤과 유평준(2014)의 분류를 참고하여 문헌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에 따라서 연구를 구분하였다. 〈표 5〉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문헌의 제목, 초록, 저자 키워드를 참조하여 연구목적 하위 범주를 코딩하기 위해 세운 기준이다.

〈표 5〉 연구목적 하위 영역

연구목적	세부주제
정보취약 실태	▪ 취약실태 및 인식조사 ▪ 취약실태 연구동향 ▪ 정보취약으로 인한 영향
정보취약 해소방안	▪ 정보취약 해소에 기여요인 ▪ 해소정책
정보취약 영향요인	▪ 정보취약과 관계성을 갖는 요인
정보취약 해소효과	▪ 관련 프로그램 평가 ▪ 소외계층의 정보화에 따른 영향

4.3 키워드 네트워크 구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정보취약 관련 문헌 수는 총 195편이고, 수집한 논문들이 수록하고 있는 저자 키워드의 고유단어는 총 486개이다.

정보격차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키워드 네트워크의 구축은 두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는 저자 키워드와 각 분석기준에 따른 하위 범주를 통합한 동시출현기반 단어 네트워크 구축이고, 두 번째는 구축된 단어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변환하여 최종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인 저자 키워드와 분석기준 수작업 코딩 결과를 결합한 동시출현 단어쌍의 추출과 네트워크 구축은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연구대상 분석에서 A논문의 저자 키워드가 '도서관서비스', '가이드라인', '노인'이고, 이 논문에 연구대상 범주 중 '고령자'라는 정보취약계층 하위 범주가 코딩되었다면 동시출현 단어쌍은 고령자-도서관서비스, 고령자-가이드라인, 고령자-노인, 도서관서비스-가이드라인, 도서관서비스-노인, 가이드라인-노인 등 총 여섯 쌍의 동시출현 단어쌍이 추출된다. 따라서 수집 문헌에 포함된 모든 저자 키워드는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할당한 분석기준(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의 하위 범주와 반드시 한 번 이상 동시출현쌍을 가지게 된다.

그다음 구축된 단어 네트워크에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스케일링(Pathfinder network scaling)을 적용하여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를 추출한다.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스케일링 기법은 노드 n에서 노드 n+1로 연결된 경로에서 n에서 n+1로 직접 이동하는 긴 경로와 복수의 짧은 경로들이 동시에 존재할 때 직접 연결된 긴 경로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네트워크 내 경로들을 축소하여 네트워크의 복잡성을 줄이는 기법이다(이재윤, 2006). 첫 번째 단계에서 설명하였듯이 저자 키워드와 분석기준을 통합한 동시출현기반 단어 네트워크에는 각 저자 키워드들이 각 분석기준의 하위 범주와는 반드시 하나 이상 연결되어있는 복잡한 네트워크가 된다. 본 연구는 패스파인더 스케일링을 앞서 구축한 복잡한 저자 키워드+분석기준 네트워크에 적용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살펴보고자 한 정보격차 연구의 분석기준 즉,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 등이 어떤 키워드와 가장 근접하게 연결되어있는지 시각적으로 단순화하여 분석하였다.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의 구축은 이재윤(2013)의 WNET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하였다. WNET은 코사인 유사계수를 사용하여 문헌-단어 네트워크를 단어-단어 가중치 네트워크로의 변환과 최근접 이웃 그래프(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PNNC)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클러스터링을 수행한다. 구축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는 NodeXL

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5. 분석 결과

5.1 수집 데이터 결과

4개 학술지의 창간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195편의 정보취약 연구문헌의 연도별 변화추이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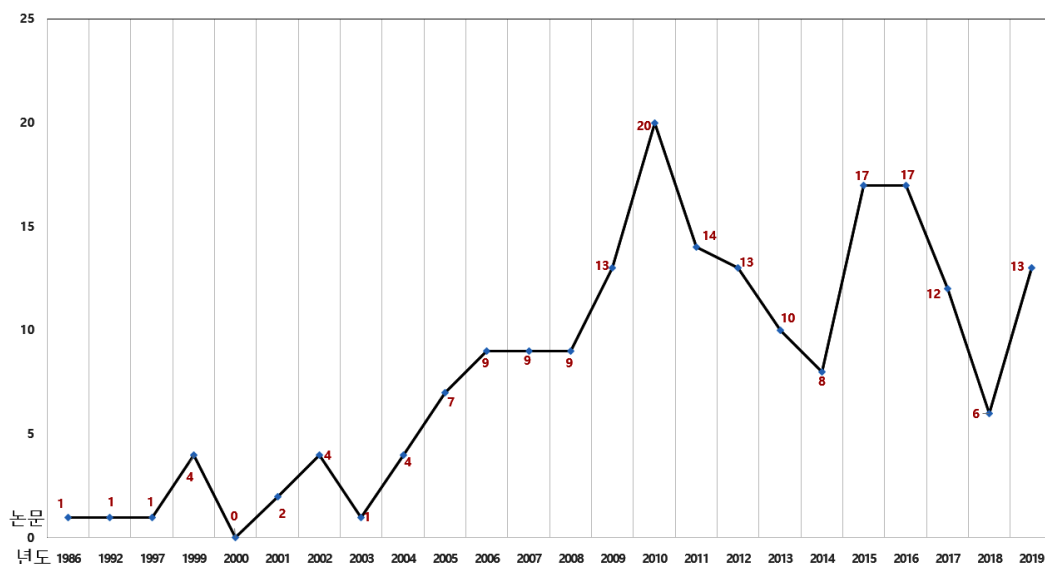
정보취약 연구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손문철과 김영귀(1986)가 시각장애인을 위한 도서관 정보봉사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90년대 7편이 게재되었으며, 2006년부터 활발하게 연구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에는 연평균 9.9편으로 대략 연 10편의 논문들이 발표되었는데, 이는 2006년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립을 위한 도서관법의 개정과 위원회설립 이후

2009년 제1차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식정보서비스의 강화'가 도서관 정책과제로 선정되는 등 국가 차원의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학술지별 발행 추이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전체 195편 중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편(27.2%), 한국비블리아학회지 46편(23.6%), 정보관리학회지 21편(10.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75편(38.4%)으로 나타났다.

5.2 연구대상 분석

연구대상(정보취약계층)별 연구동향을 수작업 코딩·분석한 결과, 장애인 70편(35.9%), 다문화가정 47편(24.1%), 고령자 38편(19.5%), 이 세 계층에 관한 연구가 155편으로 전체 연구의 79.5%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5편(2.6%), 한



<그림 1> 연도별 정보취약 논문 발행 빈도

〈표 6〉 학술지별 정보격차 발간 현황

	한국 문헌정보 학회지	한국 비블리아 학회지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도서 관·정보 학회지	계		한국 문헌정보 학회지	한국 비블리아 학회지	정보관리 학회지	한국도서 관·정보 학회지	계
1986	0	0	0	1	1	2008	4	1	0	4	9
1992	0	0	0	1	1	2009	3	3	2	5	13
1997	0	0	0	1	1	2010	3	6	2	9	20
1999	1	0	0	3	4	2011	6	5	0	3	14
2000	0	0	0	0	0	2012	4	3	1	5	13
2001	0	0	0	2	2	2013	3	1	3	3	10
2002	1	1	1	1	4	2014	2	4	0	2	8
2003	0	0	0	1	1	2015	4	3	3	7	17
2004	2	0	1	1	4	2016	5	5	4	3	17
2005	1	3	0	3	7	2017	2	2	1	7	12
2006	4	1	0	4	9	2018	1	3	1	1	6
2007	4	1	0	4	9	2019	3	4	2	4	13

부모가정 1편(0.5%)으로 특정 계층에 편중되어 연구되었다. 이 결과는 국가통계포털(2018)에 의하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743,690명(3.4%), 등록 장애인 258만 6,000명(5%), 65세 이상 고령자 14.3%, 한부모가정이 2015년에 이미 전체 가구의 9.5%를 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도서관·문헌정보학 분야에서는 정보격차 연구대상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그림 2〉는 저자 키워드와 정보취약계층의 하위 범위를 코딩하여 동시출현단어 기반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이다. 저자 키워드+정보취약계층 하위 범주의 11개가 연결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노드 간 주요 경로를 시각화하였고, 노드의 크기는 연결정도 중심성을 반영하였다. 네트워크 상의 색은 PNNC 알고리즘을 적용한 클러스터링 군집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PNNC 클러스터링 결과 총 6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그림 2〉의 내용을 같은 군집에 속한 키워드

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취약계층 전체에 대해서는 디지털 정보격차, 정보 불균형, 정보 불평등, 정보소외 계층, 정보격차에 대한 실태, 정보격차의 발생 원인, 정보요구 및 이용행태, 정부 정책 분석 및 제안,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과 정보이용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도서관서비스의 개선 및 정보화교육 방안이 연구되었고, 장애인과 다문화가정은 공공도서관, 유학생(다문화가정)은 대학도서관, 농어촌 주민은 학교도서관, 국군장병은 병영도서관과 관련된 도서관서비스가 연구되고 있었다.

둘째, 장애인은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독서활동과 관련이 높은 장애 유형인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대체자료제작, 장애인도서관서비스, 도서관자원봉사 등의 정보격차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이었다.

셋째, 다문화가정은 유학생, 농어촌 주민, 결혼이주여성, 이주노동자 등과 연결되어 나타나는데 도서관 다문화 프로그램과 서비스, 다문

특정 도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정보소외 및 정보빈곤의 실태와 사례 연구가, 한부모 가정, 비행청소년과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요법 및 독서치료 프로그램이 연구되었는데, 재소자가 비행청소년과 연결된 까닭은 성인 재소자가 아니라 소년원 재소자 대상의 독서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연구가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고령자에 대해서는 도서관이나 노인복지시설 이용자를 대상으로 독서교육을 실시하고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와 치매 질환자를 대상으로 독서치료, 독서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자존감, 사회성, 우울감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다섯째, 국군장병과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모두 독서와 독서활동, 독서프로그램, 독서코칭 등의 운영과 관련하여 정보격차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국군장병은 병영도서관 운영실태 및 도서관 평가, 군인들의 독서실태 및 독서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효과검증을 중심으로 연구가, 복지시설의 보호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가출청소년이 생활하는 쉼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독서심리코칭 프로그램을 구안·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사례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5.3 연구목적 분석

정보격차 문헌의 연구목적은 정보취약 실태, 정보취약 해소방안, 정보취약 영향요인, 정보취약 해소효과 등 4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고 하위 범주를 각 문헌에 코딩한 기준은 앞서 기술한 <표 5>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였다.

연구목적으로 본 정보격차 연구 동향은 <그림 3>과 같다. <그림 3>은 저자 키워드와 연구목적 하위 범위를 코딩하여 동시출현단어 기반 키워드 네트워크를 구축한 결과이다. 저자 키워드+연구목적 하위 범주의 4개가 연결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노드 간 주요 경로를 시각화하였고, 노드의 크기는 연결정도 중심성을 반영하였다. 네트워크 상의 색은 PNNC 알고리즘을 적용한 클러스터링 군집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PNNC 클러스터링 결과 총 6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그림 3>에서 정보취약 연구목적의 하위 범주 중에서 정보취약 실태와 정보취약 해소방안이 인접해있고, 정보취약 영향요인과 해소효과가 인접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취약실태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해소방안이 제시되었고, 영향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해소효과를(또는 반대로) 제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가운데 위치한 검은색으로 표현된 군집들에 속한 연구들도 저자 키워드+연구목적 동시출현 네트워크에서는 정보취약실태, 해소방안, 영향요인, 해소효과 등 연구목적 하위 범주 중 하나 이상의 범주와 서로 연결(동시출현)되어 있었으나 패스파인더 스케일링을 적용한 후에 그 연결이 삭제된 것이다. 따라서 연구목적 하위 범주와 동일한 군집(색)으로 표현된 연구들이 더 강하게 해당 연구목적과 연결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의 내용을 같은 군집에 속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약실태와 해소방안은 장애인, 고령자, 다문화가정, 정보격차 해소 대상인 취약계층 전체를 대상으로 활발하게 연구되었으며, 이들에 대하여 도서관서비스와 정책, 사서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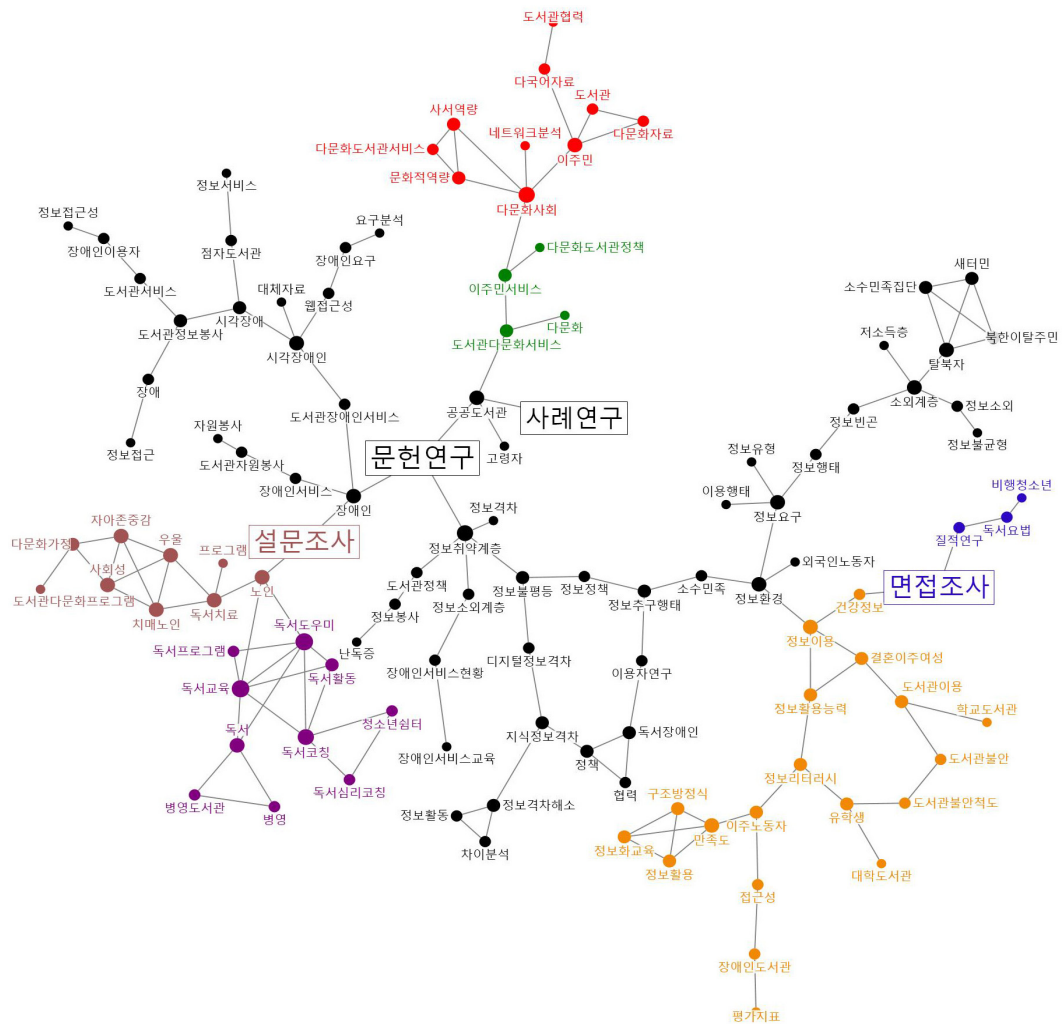
하는 연구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4 연구방법 분석

정보격차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 연구, 사례연구, 설문조사, 면접조사 등 4개의 하위 범주로 구분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수작업 코딩 결과 수집된 문헌 195편 중 한 가지 연구

방법을 사용한 문헌은 155건, 두 가지 연구방법 (예를 들어, 사례연구와 설문조사)을 적용한 문헌은 38건, 세 가지의 연구방법을 적용한 문헌이 2건이었다. 연구방법 하위 영역을 중복 코딩한 결과는 문헌연구 69건, 사례연구 46건, 설문조사 84건, 문답조사 37건으로 집계되었다.

〈그림 4〉는 저자 키워드와 연구방법 하위 범위를 코딩하여 동시출현단어 기반 키워드 네트



〈그림 4〉 정보격차의 연구방법

워크를 구축한 결과이다. 저자 키워드+연구목적 하위 범주의 4개가 연결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로 노드 간 주요 경로를 시각화하였고, 노드의 크기는 연결정도 중심성을 반영하였다. 네트워크 상의 색은 PNNC 알고리즘을 적용한 클러스터링 군집을 서로 다른 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PNNC 클러스터링 결과 총 7개의 군집이 형성되었다.

첫째, 정보격차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와 함께 사례연구 또는 설문조사를 동시에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문화가정 관련 연구는 사례연구가 더 빈번히 사용되었으며, 독서프로그램과 관련된 연구는 설문조사가 더 빈번히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헌연구를 적용한 장애인 연구는 도서관장애인서비스가 중요한 키워드이고, 장애유형 중 시각장애인을 중심으로 웹접근성, 대체자료, 정보봉사, 자원봉사 측면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문헌연구를 적용한 정보격차에 관한 연구는 도서관 정책, 정보취약계층, 정보 불평등의 연구에 있어서 선호하는 방법이었다.

둘째, 설문조사는 설문조사 단독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문헌연구와 함께 이용되었으며, 특히 고령자를 대상으로 독서교육, 독서치료를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 독서도우미에 의한 독서교육, 독서활동의 효과로 우울감, 자아존중감, 사회성의 변화를 검증하는 연구에 적용되었다. 또한 국군장병을 대상으로 병영도서관, 독서활동에 대해,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도서관다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설문조사 방법이 적용되었다.

셋째, 질적 연구방법인 면접조사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독서요법 연구, 이주노동자의 일상생활에서의 정보빈곤의 실태, 외국인 유학생의 대학도서관에서 느끼는 불안감, 건강정보 등 특정 주제에 대한 결혼이주여성의 정보요구와 정보행태 등에 대한 사례연구에 적용되었다. 또한 결혼이주여성, 유학생, 이주노동자, 장애인, 비행청소년 등 연구대상이 소수인 경우 채택되는 경향을 보였다.

6. 결론과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문헌정보학의 '정보격차' 관련 논문들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이를 기초로 향후 관련 연구의 발전에 필요한 함의를 도출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 4개 학회지(한국문헌정보학회지, 한국비블리아학회지, 정보관리학회지,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의 창간호부터 2019년까지 게재된 논문 195편의 '정보격차' 관련 문헌을 대상으로 저자 키워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헌 수집 결과 '정보격차' 관련 연구는 1986년을 시작으로 2006년 이후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가 정보접근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연구의 발전에 기여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정보격차의 연구대상, 연구목적, 연구방법과 저자 키워드 패스파인더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제시된 결과를 토대로 관련 연구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의하면 2018

년 공공도서관 1096관으로 도서관은 양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정보접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으로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표적인 문헌정보학 학술지의 4,135건의 게재논문 중 '정보격차' 관련 연구는 195편 4.7%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학문적 관심과 노력이 활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의 '부익부, 빈익빈'이 사회의 양극화를 초래하고, 분리된 계층을 고착화하는 중대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보격차 해소에 대한 책무를 지닌 문헌정보학에서의 '정보격차'에 대한 관심은 향후 더욱 요구된다.

셋째, 정보격차 연구대상의 연구동향 분석결과 장애인 35.9%, 다문화가정 24.1%, 고령자 19.5%로 이 세 계층 관련 연구가 155편, 전체의 79.5%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5편(2.6%), 한부모가정 1편(0.5%)으로 특정 연구대상에 편중되어 연구되고 있었고,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통계학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다양한 정보취약계층으로 연구대상의 폭을 확대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정보격차, 장애인, 공공도서관을 중심으로 다문화, 고령자 등에 대한 정보취약 실태와 해소방안을 목적으로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정보취약 해소효과, 정보취약의 영향요인을 목적으로 한 연구는 고령자, 독서치료, 정보화교육, 정보활용, 독서프로그램을 구안하고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정부 정책, 사서, 매체, 도서관 시설 등 급변하는 도서관과 문헌정보학의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여 연구주제 및 목적을 다양화하고 확대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연구방법에 있어서 문헌연구 69건, 설문조사 84건, 사례연구 46건, 문답조사 37건으로 양적 연구 189편(96.9%), 질적 연구 6편(3.1%)으로 양적 연구방법에 편중되어 연구되고 있었으며, 연구방법에 있어 경제성과 편리성도 고려 요인이나 세부적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요구나 이용행태 등을 연구하는 데는 양적 연구와 더불어 질적 연구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학문적인 연구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정책에 중요한 기반이 됨을 생각해볼 때 '정보격차' 연구의 접근방식은 현실론에 기반하여야 한다. 즉 향후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환경으로의 변화에서 정보격차의 요인, 실태, 인구통계학적 특성 등 정보격차와 관련한 다양한 현실적인 변화들에 대한 학자적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자칫 특정 대상과 피상적인 해결방안으로 이어지면 정보격차 해소를 요원하게 만들 우려가 있으므로, 후속 정보격차 연구는 다양한 대상 간의 정보격차를 조명함은 물론 정보격차 유형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과 더불어 정보격차를 야기하는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유미 (2007).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격차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행정학전공. <http://www.riss.kr/link?id=T11212905&outLink=K>
- 노영희, 장로사 (2019). 정보불평등 계층을 위한 도서관서비스 관련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3), 63-82.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3.063>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2019). 2019-2023 제3차도서관발전종합계획. 서울: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 서이중 (2000). 디지털 정보격차의 구조화와 사회문제화. 정보사회와 미디어, 2, 68-87
- 서형준, 명승환 (2016). 국내 정보격차연구 동향: 국내학술지를 중심으로. 한국지역정보학회지, 19(4), 151-187.
- 손문철, 김영귀 (1986). 시각장애자를 위한 도서관 정보봉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13, 29-58.
- 오철호 (2009). 정보화평가연구의 경향: 하나의 실증분석. 정보화정책, 16(4), 3-26.
- 윤정옥, 박동철, 심경 (2012). 정보취약계층의 정의와 속성에 관한 고찰.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6(4), 189-206.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189>
- 윤희운 (2012).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 취약계층서비스 전략.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3(2), 53-75. <http://dx.doi.org/10.16981/kliss.43.2.201206.53>
- 이명진, 박기태 (2009). 정보격차 연구의 쟁점 변화와 그 함의. 정보화정책, 16(3), 3-17.
- 이성신, 강보라, 이세나 (2019). 정보격차 연구 동향 분석: 문헌정보학분야와 일반사회과학분야의 비교.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0(3), 139-166.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9.139>
- 이은철, 심효정 (2008). 공공도서관의 지식정보격차해소 기여도 분석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2(2), 309-325. <http://dx.doi.org/10.4275/KSLIS.2008.42.2.309>
- 이재운 (2006). 지적 구조의 규명을 위한 네트워크 형성 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0(2), 333-355. <http://dx.doi.org/10.4275/KSLIS.2006.40.2.333>
- 이재운 (2013). tnet과 WNET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지수 비교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0(4), 241-264.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4.241>
- 정소운, 유평준 (2014). 전자참여 연구동향 분석. 정보화정책, 21(2), 3-23. <http://dx.doi.org/10.22693/NIAIP.2014.21.2.003>
- 조선구, 노영, 정해용 (2005). 취약계층 정보활용기회 확대방안 연구.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39-252.
- 조용완 (2007). 국내 공공도서관의 정보격차해소 활동에 대한 분석.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38(4), 167-186. <http://dx.doi.org/10.16981/KLISS.38.4.200712.167>
- 최충현, 이구연 (2013). 대한민국 정보격차 현황과 대책에 대한 연구. 산업기술연구, 33, 81-88.

한국전산원 (2000). 2000 국가정보화백서. 용인: 한국전산원.

• 국문 참고문헌에 대한 영문 표기
(English translation of references written in Korean)

- Cho, Yong-Wan (2007). Analysis of the activities of public libraries for closing the information divide in Korea.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38(4), 167-186. <http://dx.doi.org/10.16981/KLISS.38.4.200712.167>
- Choi, Choong-Hyun, & Lee, Geo-Yeon (2013). A study on the current state of digital divide in Korea and the countermeasure. *Journal of industrial technology*, 33, 81-88.
- Jo, Sun-Goo, Noh, Young, & Jung, Hae-Yong (2005). The study on the expention program of digital opportunity for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Korea Digital Policy Society*, 239-252.
- Jong, So-Yun, & Yu, Pyong-Jun (2014). Analysis on e-participation research trend in Korea. *Informatization Policy*, 21(2), 3-23. <http://dx.doi.org/10.22693/NIAIP.2014.21.2.003>
- Kim, Yu-Mi (2007). A study on the solution of the digital divide for information disadvantaged groups. Dept. of Electric Government,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stration Hanyang University. <http://www.riss.kr/link?id=T11212905&outLink=K>
- Korea Computerization Agency (2000). 2000 National informatization white paper, Yongin: Korea Computerization Agency.
- Lee, Eun-Chul, & Sim, Hyo-Jung (2008). Basic study for analysis of public libraries contribution for resolving the gap in knowledge and informa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2(2), 309-325. <http://dx.doi.org/10.4275/KSLIS.2008.42.2.309>
- Lee, Jae-Yun (2006). A study on the network generation methods for examining the intellectual structure of knowledge domain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0(2), 333-355. <http://dx.doi.org/10.4275/KSLIS.2006.40.2.333>
- Lee, Jae-Yun (2013). A comparison study on the weighted network centrality measures of tnet and WNE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4), 241-264. <http://dx.doi.org/10.3743/KOSIM.2013.30.4.241>
- Lee, Myung-Jin, & Park, Ki-Tae (2009). The issue change of digital divide studies and its implication. *Informatization policy*, 16(3), 3-17.
- Lee, Seong-sin, Kang, Bo-ra, & Lee, Se-na (2019). A study on the information divide research

- trends: Comparative analysis of LIS fields and other social science field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3), 139-166.
<http://dx.doi.org/10.16981/kliss.50.201909.139>
-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2019). 2019-2023 The 3rd library development plan. Seoul: Library Information Policy Committee.
- Noh, Young-hee, & Chang, Ro-sa (2019). An analytical study on research trends of the library services for the information poor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3(3), 63-82.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3.063>
- Oh, Cheol-Ho (2009). Evaluation research on information: An empirical review. *Informatization Policy*, 16(4), 3-26.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3.063>
- Seo, Hyung-Jun, & Myeong, Seung-Hwan (2016). Research trends and issues on digital divide: Focusing on Korean journals. *Korean Regional Information Society*, 19(4), 151-187.
- Son, Mon-Cheol, & Kim, Young-Kyu (1886). A study on the library service for the visually disabled person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13, 29-58.
- Suh, Yi-Joung (2000). Structuring the digital information gap and socializing it. *Information Society and Media*, 2, 68-87.
- Yoon, Cheong-Ok, Kwack, Dong-Chul, & Shim, Kyung (2012). A study on the defin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formation po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6(4), 189-206. <http://dx.doi.org/10.4275/KSLIS.2012.46.4.189>
- Yoon, Hee-Yoon (2012). Strategies of the knowledge and information services for vulnerable classes in public libraries.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3(2), 53-75. <http://dx.doi.org/10.16981/kliss.43.2.201206.53>